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야	4월 21일(일) 11:00	강당
사목협의회	4월 25일(목) 19:40	강당
성체분배자회	4월 28일(일)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자녀를 위한 기도	5월 03일(금) 20:00	1교실
성모성심회	5월 04일(토) 17:30	강당

● 견진성사 교육 및 신앙 재교육 일정 안내

일시	제 목	강사
4/26	올바른 믿음을 고백합니다.	강봉욱 신부님
5/03	전례와 성사생활로 힘을 얻습니다.	정혁 신부님

- 교육기간 : 4월 12일(금)~5월 31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40분(8주차 교육)
-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 6월 7일(금) 20:00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 알림

- 오늘은 성소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4월 28일(일) 평화상조 홍보가 있습니다.

● 성서못자리 그룹원 모집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5월2일 개강)
- 장소 : 1교리실
- 문의 : 김명선 가리따스(010-4725-7790)
- 접수 : 성당사무실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3월 전입)

- 일시 : 4월 28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 주임신부 사무실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5구역 2반	서성숙	엘리사벳	서울대교구/구로2동
18구역 2반	김관익	요한	의정부교구/능곡
22구역 3반	성대훈	미카엘	서울대교구/창5동

● 5월 가정의 달 행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일미사에 3대이상 가족이 참석하는 가정에 선물을 선사합니다.

- 조건 : 구로3동성당 교적자(가족 중 1인 이상)
- 선물 : 외식상품권, 신부님과 가족사진 촬영 등

● 본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유급)

- 활동 : 교중미사(10:30), 주일연습(09:00~10:00)
평일연습 - 매주 목요일 오후8시
- 구비서류 : 교적사본, 이력서(반주 경력)
- 이메일 접수 : jinheel1029@seoul.catholic.kr
- 마감일 : 4월 20일(토)
- 문의 : 본당 사무실(02-857-8541)

● 다음 주일(4/28)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3구역	청소	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4월 10일 ~ 16일)

교무금		5,841,000 원
주일헌금		5,350,200 원

황정후 5만원 신종구 5만원 박홍민 5만원

- 감사헌금 박경희10만원 조성욱10만원 서만심 6만원
익명10만원 7구역국수잔치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4/21	백희자	심재순	신종구	장익근	정재경
4/28	이영민	오성환	도현만	안상록	권태희



4월 생활환경 캠페인
개인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가정생활환경분과 제안)

성가번호 ♪ 입당 : 55 ♪ 예물준비 : 129, 56 ♪ 영성체 : 179, 130 ♪ 파견 : 55

화답송 
 주님 저 희귀에 당신 일굴 밝은빛을비추소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87.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찬미와 흠송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름다운 노래에서 나타납니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으로 찬미받으소서.
태양은 낮이 되고 주님께서는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나이다.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내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인 달과 별들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달과 별들을
맑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형제인 바람과 공기로,
흐리거나 맑은 온갖 날씨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길러 주시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인 물로 찬미받으소서.
물은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하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형제인 불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불로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불은 아름답고 쾌활하며 활발하고 강하나이다.”